



완주마을이야기 since 2012

제166호

2026년 6월호

초여름, 단오를 만나다

흥겨운 풍물 소리와 구수한 쇠고기뭇국 냄새가 온 마을을 휘감으며 고산의 초여름이 활기차게 열렸다. 정성 어린 손길로 추제를 일군 주민들의 땀방울부터 모내기와 씨름판을 달군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로 아우러진 단오 풍경을 담았다. 관련 기사 2-8면

사진설명: 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과 어린이들이 논생물을 채집하고 있다.

- 삶의 풍경 고산 이말레 이야기 ... 10-11P
- 농촌봄농장 완주허브랑협동조합 ... 12P
- 봉동 낙행리 데일리로 감상사진관 ... 14P
- 운주아이들이 선물한 노란 기린 ... 16P



단오는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고 여름의 건강을 빌며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던 날이었다. 누군가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누군가는 씨름판에서 힘을 겨뤘다. 중요한 것은 놀이 자체보다도 같은 계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이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사람은 결국 사람 곁에서 살아간다. 함께 웃고, 음식을 나누고,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은 오래된 풍습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다.

이번 고산 단오 한마당 역시 잊혀가는 명절을 되살리는 것을 넘어 마을 사람들을 다시 연결하는 작은 축제로 펼쳐졌다.

#### >> 단오를 준비하는 마음들

12일 저녁, 단오 행사를 하루 앞두고 고산면 주민들이 하나둘씩 행사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오후 6시가 되자 음식 준비를 맡은 팀과 씨름장을 꾸리는 팀 등 30여 명의 주민이 분주하게 움직

였다.

이번 행사는 고산벼두레와 고산향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고산초·중·고 양육자들과 주민들이 함께 준비했다. 행사에 사용할 식재료를 손질하고, 부족한 물품은 각 가정에서 십시일반 보태며 축제를 만들어갔다.

배식팀은 다음 날 참여자들에게 제공할 점심 준비에 한창이었다. 쇠고기 못국에 사용할 무를 다듬고 채소전과 김치전 재료를 손질하며 손을 바빠 움직였다. 행사 당일 사용할 커다란 술도 한편에 준비돼 있었다. 주민들이 후원한 식재료와 양육자들이 가져온 재료들이 더해져 200인분이 넘는 음식이 마련됐다. 씨름팀 역시 역할을 나누어 경기장을 정비하고 다음 날 열릴 단오 한마당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했다.

올해 처음 행사 준비에 참여한 주민들도 있었다. 청완초등학교로 전학 온 한 양육자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처음 참여했지만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

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늦은 저녁까지 이어진 준비 현장에는 피곤함보다 기대감이 더 컸다. 누군가는 채소를 다듬고, 누군가는 씨름장을 정비하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축제를 만들었다.

#### >> 신명 나는 길굿놀이로 막을 열고

13일 오전 9시, 축제의 시작을 여는 건 어김없이 삼우초등학교 6학년들의 길굿놀이였다. 지금까지 선배들이 해왔던 놀음을 눈으로, 몸으로 익힌 올해의 주인공들이 그간 갈고닦은 실력을 보여줄 차례다. 스승인 손현배 전승인이 외부 대회 참석으로 자리를 비웠지만 상쇠의 팽과리 소리에 맞춰 알아서 모였다가 흩어지며 장단을 연주하는 모습에 흐트러짐이 없다.

점점 더 흥겨워지는 장단에 화려한 상모놀이까지 더해지니 축제장에 모인 사람들이 눈을 떼지 못하고 공연에 더욱 빠져들었다. 누군가는 후배들의 열정을 통해 몇 년 전 추억을 떠올리고, 또 누

## 세대와 마을을 잇고 공동체를 굳건히 지탱하는 고산의 단오 밴드+길굿놀이 응원 듣고 “모들아, 잘 자라다오”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서 고산고와 고산중 아이들의 밴드가 흥겨운 공연으로 참가자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모내기에 참여한 이들이 못줄잡이의 구령에 맞춰 모를 심고 있다.  
 모내기에 앞서 한 모에서 공기밥 다섯 그릇이 나온다고 설명 하고 있는 고산벼두레 경작위원장 류한승 씨  
 고산초 학부모운영위원회가 맡아 운영한 전통놀이 체험 부스, 음식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지역 어르신들

군기는 되살아난 옛 공동체 풍경에 감동하는 순간이었다. 저마다 다른 감상을 느끼게 한 길곳놀이  
 이가 마무리되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 공연단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 논 위에 그린 초록빛 줄**

삼우초 6학년이 한껏 띄운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  
 도록 고산 풍물놀이패가 장단을 잇는 가운데, 한  
 두 마지기 반 규모의 논에서 청소년과 양육자, 마  
 을 어르신들이 한데 모여 풍년을 기원하는 모내  
 기 체험에 나섰다. 처음 논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진흙의 촉감을 신기해했고 어르신들은 익숙한 손  
 놀림으로 모를 쥐며 자리를 잡았다.

논 양 끝에는 못줄 잡이가 섰다. 팽팽하게 당겨진  
 못줄이 앞으로 이동할 때마다 참여자들은 “한 발  
 짝 뒤로~”라는 구호에 맞춰 한 줄씩 모를 심어 나  
 갔다. 줄을 맞추지 않으면 모가 빠뜨어지기 때문  
 에 모두가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했다. 못줄이 한  
 번 당겨질 때마다 초록빛 모가 반듯하게 줄을 이  
 었다. 아이들과 어른들은 서로의 손놀림을 살피  
 며 빈 곳을 채우고 간격을 맞춰갔다. 빠르게 심는  
 사람도 서툴게 심는 사람도 있었지만 못줄 앞에  
 서는 모두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 예나 지금이나 정겹기만 한 곳**

아이들이 빠져나온 논에 어른들만 남아 모를 심  
 는 동안, 진흙투성이 다리를 씻어낸 아이들은 때  
 이른 더위를 식히려 물놀이를 시작했다.

올해 3월 고산으로 이사 온 주다는 씨와 세 살배  
 기 이음도 한쪽에서 작은 물장난을 쳤다. 아이  
 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축제를 찾다가 ‘고산 특방’  
 에서 소식을 듣고 왔다는 다른 씨는 “교육자, 양  
 육자, 마을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매년 공동  
 체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한다는 점이 놀랍고 좋  
 다”고 말했다.

한쪽 나무 그늘에서 펼쳐진 고산고와 고산중 밴  
 드 공연이 마무리된 후에는 운동장 곳곳에 편하  
 게 앉아 맛있는 점심을 즐겼다. 배를 채우고 돌아  
 다니며 부스를 구경하다 보면 단오 한마당의 꽃  
 인 씨름 대회 시간이다. 학교별 대항전으로 치러  
 진 터라 구경꾼들은 자기 팀을 응원하면서도 도  
 전자들을 승패에 상관없이 격려했다. 좋은 기술  
 을 시도하면 호응하고, 아쉽게 넘어지면 “괜찮아,  
 잘했어!”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정이  
 넘치던 옛 마을 풍경이 아직도 이곳에 있음을 깨  
 닫는다. **공**



모내기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응원 중인 삼우초 병설유치  
 원 아이들



# 200인분 밥심 책임진 든든한 '뒷심'들

고산향교육공동체, 범실마을 어르신들과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 백종수 씨

오전 내내 땀 흘려 모를 심었으니, 오후에도 열정적으로 놀려면 '밥심'이 필수다. 단오 한마당을 찾은 200여 명의 든든한 점심 식사를 책임지기 위해 고산향교육공동체, 인근 범실마을 어르신들, 백종수 씨가 나섰다.

전날 저녁 삼우초 가사실에 모인 고산 양육자들이 정성스레 부침개 반죽을 만들고 쇠고기 못국 재료를 손질했다. 다음날 못국을 담당한 유인순 어르신은 삼우초의 이웃 주민이다. 가까운 마을 주민들이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는 학교 측의 제안에 흔쾌히 수락한 것이 인연의 시작이다.

"어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재료 손질은 다 해줬지. 오늘 아침에는 또 저기 종수 씨가 화로를 기가 막히게 설치해 줬잖아. 우리는 그냥 솔에다 대고 간만 잘 맞추면 돼. 이제는 내 손주들이 다 졸업해서 학교에 안 다니지만, 매년 이맘때 아이들이 웃고 뛰어노는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매년 보던 얼굴도 반갑고, 새로 입학한 얼굴은 기특하고. 어떤 얼굴이든 다 우리 지역 아

이들이라는 생각에 정이 더 가네." 어르신들이 손맛을 낼 수 있도록 이른 아침부터 커다란 화로 2개를 똑딱 조립하고 불을 지핀 백종수 씨 역시 삼우초 학부모다. 귀촌 후 아이들이 삼우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축제 일꾼을 자처했다. "조금 힘들긴 해도 맛있게 국을 드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람찰 수가 없어요. 어머니들이 정성껏 끓이시는 국이 식지 않도록 열심히 불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종수 씨는 "막내가 삼우초를 졸업할 때까지 매년 단오 한마당 화로 앞 지킴이로 출석 도장을 찍어야 할 것 같다"며 유쾌한 웃음을 터트렸다.



**Q** 인순 어르신은 무슨 일 담당이에요?

**A** 매들 뛰노는 소리 들으며 맛난 쇠고기 못국을 끓이지~



**Q** 고산향교육공동체는 무슨 일 담당이에요?

**A** 재료 손질하고 고소한 부침개 부쳐요!

**Q** 종수 씨, 무슨 일 담당이에요?

**A** 국 끓일 화로 2개 담당! 막내 졸업때까지 꾸욱~



## 축제 참여하고 여행준비는 덤

인기만점 음식부스  
고래센터 여행동아리 '루트11'

단오 행사장 한편에 길게 늘어선 줄이 눈길을 끌었다. 떡볶이 냄새가 퍼지는 음식부스에서는 11명의 청소년들이 분주하게 손님을 맞고 있었다. 여행을 꿈꾸는 아이들이 직접 메뉴를 정하고 준비한 음식들이었다.

고래센터 여행동아리 '루트11'은 2011년생 청소년 11명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행 경비를 마련하고 지역 축제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음식 판매에 나섰다. 아이들은 메뉴 선정부터 준비 과정까지 직접 맡았다.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떡볶이, 복숭아아이스티, 레몬에이드 3가지 메뉴를 정하고 떡볶이 양념도 직접 연구해 축제 레시피를 완성했다. 행사 전날에는 가래떡을 방앗간에서 뽑아 준비하고 어묵도 직접 썰며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다. 가격 안내 포스터 역시 동아리 회원이 직접 디자인했다. 당초 정오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오전 10시부터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부스 앞에는 줄이 길게 이어졌고, 한때는 대기표까지 등장할 정도였다. 이날 준비한 떡볶이 100인분과 음료 100잔은 빠르게 동났다.

루트11 대표 정수민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메뉴를 정하고 직접 준비한 음식을 많은 분들이 맛있게 먹어주셔서 뿌듯했다"며 "수익금은 앞으로 여행을 가기 위한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행을 꿈꾸는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작은 부스는 단순한 먹거리 판매를 넘어 지역축제를 함께 만드는 특별한 경험이 됐다.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도 아이들의 열정에 응원을 보내며 즐겁게 축제를 함께했다.




## “내 아이 덕분에 마을에 깊게 뿌리내리는 중”

삼우초 학부모운영위원회  
서유란 총무

행사 당일 오전, 형광 노란색 조끼를 입고 축제장 곳곳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이가 있었다. 삼우초 학부모운영위원회 총무로 활동하는 서유란 씨다. 작년에 아이가 삼우초 1학년으로 입학하면서 단오 한마당과 첫 인연을 맺은 그는 올해 초 양육자들의 권유로 총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잘 해낼 수 있을까 고민도 많았지만, 작년에 느꼈던 감동이 그를 움직였다. “작년에 처음 참여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따뜻한 분위기와 풍성한 즐길 거리에 정말 놀랐어요. 무엇보다 지역 사람들이 오랜 세월 꾸준히 모여 이 축제를 이어왔다는 게 큰 의미로 다가왔죠. 아이 덕분에 참여하게 됐지만, 오히려 제가 이 지역사회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든든한 감각을 느꼈어요.”

매년 단오 한마당이 끝나면 축제를 만든 이들이 다시 모여 머리를 맞댄다. 좋았던 점은 나누고, 불편했던 점은 어떻게 개선할지 꼼꼼하게 피드백하기 위해서다. 유란 씨는 이 끈끈한 뒷수습의 과정이야말로 축제의 진짜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지역사회가 조금 더 즐겁고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 딱 그 하나로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따뜻한 어른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삼우초의 의미 있는 축제가 매년 기적처럼 열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우리 눈에 사는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완주군친환경농업인협회 X 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

축제 시작부터 아이들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들이 모여드는 곳은 운동장 구령대 바로 앞에 있는 ‘뽕튀기와 곤충관찰’ 부스다. 완주군친환경농업인협회 김지연 사무장과 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이하 논살림)이 의기투합해 준비한 부스로, 논살림 조합원들이 전날부터 당일 이른 아침까지 직접 학교 옆 논에 사는 다양한 생물 친구들을 데려왔다. 완주의 친환경 농업을 알리는 김지연 사무장의 열정과 전 지역을 무대로 논생태 교육을 펼치는 논살림의 전문성이 만나 단오 한마당을 더욱 풍성하게 채운 것이다.

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 방미숙 씨는 “논은 단순히 쌀을 생산하는 공간을 넘어, 수많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거대한 습지이자 생태계”라며 부

스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이들은 돋보기를 들고 논에서 직접 채집한 풍년새우, 긴꼬리투구새우, 물자라 등을 신기한 듯 들여다보았다. 평소에는 쉽게 볼 수 없는 작은 생명체들을 마주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몸소 깨닫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펼쳐진 셈이다.

김지연 사무장 역시 “아이들이 논생물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먹는 친환경 쌀이 어떤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는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랐다”라며 미소를 지었다.

완주의 땅과 자연이 품은 생명력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싹싹 심어준 이들의 콜라보 덕분에 단오 한마당은 생태의 가치를 배우고 이웃의 정을 나누는 더욱 뜻깊은 축제로 거듭날 수 있었다.




논생물들이 궁금한 아이들(사진 위)과 완주군친환경농업인협회 김지연 사무장(가운데)과 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들



## 모래바람 날리며 “으라앗차!” 초여름을 메친 단오 한마당 씨름판

### 단오의 꽃 씨름 현장

초여름 햇볕으로 달아오른 모래 위, 단오 한마당의 하이라이트인 씨름대회가 한바탕 열렸다. 이번 대회는 개인전뿐만 아니라 학교 대항전까지 더해져 그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초등부, 중·고등부, 성인부까지 모래판에 올라설 때마다 관객들의 눈빛도 함께 빛났다. 끈질긴 탐색전이 이어질 때면 숨을 죽이며 집중했고, 단 3초 만에 화끈한 기술로 승패가 갈릴 때는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이 터졌다. 특히 초등 저학년 경기 직후, 우승한 아들을 영화 ‘라이언 킹’의 한 장면처럼 번쩍 들어 올린 어머니의 세레모니는 모두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물했다. 축제의 백미는 고산초, 삼우초, 고산중, 고산고 대표들이 맞붙은 학교 대항전이었다. 치열한 접전 끝에 고산초등학교가 최종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유랑극단 '극:판'의 단원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걷고 춤추며 축제의 즐거움을 나누고 있다.

단오한마당의 특별한 마지막은?

## 바로바로~ 유랑극단 '극:판'의 퍼레이드지!

단오축제의 마지막은 유랑극단 '극:판'의 퍼레이드가 장식했다. 북소리와 음악에 맞춰 알록달록한 의상을 입은 단원들이 씨름장을 출발하자 주민들은 발길을 멈추고 구경하거나 자연스럽게 뒤를 따르며 축제의 한 장면이 됐다.

고산읍내 작은 편집숍에서 낭독회를 이어오던 모임은 어느새 극단 '극:판'으로 성장했다. 대표 술래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극:판의 가장 큰 특징은 대표 한 사람이 공연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함께 공연을 만들어 간다는 점이다. 주민과 객원 단원들이 아이디어를 보태고 역할을 나누며 무대를 완성해 나간다.

이번 퍼레이드 역시 객원을 포함한 8여 명이 함께 준비했다. 키다리 뼈에 의상과 다양한 코스프레 복장, 북 연주 등 공연의 여러 요소가 참여자들의 의견 속에서 만들어졌다. 공연 중간에는 '악동뮤지션 소문의 낙원'에서 배운 율동을 함께 추고 숲으로 이동해 즉석에서 춤판을 벌이기도 했다. 마지막 곡인 YMCA 음악이 흐르자 주민들도 함께 몸을 움직이며 자연스럽게 공연의 일부가 됐다.

특히 이번 퍼레이드는 관객과 공연자를 구분하기보다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원들은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걷고 춤추며 축제의 즐거움을 나눴고 처음에는 지켜보던 주민들도 어느새 행렬에 합류해 웃음과 박수를 보냈다.

지난 6월 직접 쓴 대본으로 연극 공연을 선보였던 극:판은 이번 퍼레이드를 통해 또 다른 방식의 공연을 시도했다. 술래 대표는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극:판의 힘"이라며 "이번 공연도 모두가 즐겁게 참여해 준 덕분에 더 풍성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앵콜 공연을 비롯해 3~4차례 정도 공연을 더 이어갈 계획"이라며 "주민들과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을 계속 만들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아이디어가 더해진 극:판의 퍼레이드는 단오축제의 마지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공연을 보는 축제를 넘어 함께 만드는 축제의 모습을 보여준 시간이었다. (공)



## 심심한 완주 여기로 모이자!



호국보훈의 달 6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며 완주군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만나보자. 일상에 활력을 더해줄 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시 일정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각 프로그램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산 청년거점공간 '청춘 방앗간'

【AI 플레이그라운드 심화】

생성형 AI 활용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스터디 모임이다. Claude 등 AI 도구를 활용한 실습과 설명만으로 코드를 만드는 '바이브코딩' 체험을 진행한다.

진행정보: 6월 27일 (토) 오후 4시

【머니로그:경제노트 만들기】

경제초보 청년들이 함께 배우고 기록하는 경제 스터디 모임! 관심 있는 사람은 방앗간 모임을 통해 함께 하자!

진행정보: 6월 20일 (토) 오후 2시, 25일 (목) 오후 7시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00 김밥천국 2층

문의: 063-262-280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 월, 공휴일 휴무)

### 삼례 청년문화공간 '완충지대'

【반짝반짝 나만의 손글씨】

캘리그래피 기초부터 포일 캘리그래피까지! 반짝이는 나만의 필사를 해보는 시간이다.

진행정보: 6월 18일 (목) 오후 7시

신청방법: 정원 마감까지

모집인원: 6명

【청년 네트워크 살롱/몽글】

글쓰기를 통해 일상을 돌아보고 마음을 나누는 힐링 에세이 자율 소모임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해 보자!

진행정보: 6월 19일(금) 오후 7시

신청방법: 정원 마감까지

모집인원: 6명

【문화예술 인문학산책】

어렵게만 느껴졌던 미술과 인문학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보고 듣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어느새 지적 대화도 가능해진다!

진행정보: 6월 25일(목) 오후 7시

신청방법: 정원 마감까지

모집인원: 6명

【완충 음감회】

각자 좋아하는 음악을 소개하고 함께 감상하는 시간이다.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며 취향을 나눠보자!

진행정보: 6월 26일 (금) 오후 7시~9시

신청방법: 정원 마감까지 \*선착순 접수

모집인원: 6명

주소: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382 (신아빌딩 4층)

문의: 070-4113-777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 월, 공휴일 휴무)

### 이서 청년거점공간 '이서나루'

【체형 밸런스 데이】

자세부터 움직임까지, 내 몸의 균형을 점검하고 건강한 습관을 알아보는 시간을 함께 해보자!

진행정보: 6월 20일 (토) 오후 2시~4시

신청방법: 정원 마감까지

모집인원: 10명

【취미로 돈 버는 디지털 드로잉】

나만의 그림을 디지털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법과 수익화 과정을 배워보자!

진행정보: 6월 27일 (토) 오후 1시~3시

신청방법: 정원 마감까지

모집인원: 10명

주소: 완주군 이서면 갈산로 40 공취팔쥐도서관 5층

문의: 063-229-323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 월, 공휴일 휴무)

전체 거점공간 신청은 인스타그램: @wijyc\_official

### 창작과 공유, 소통의 공간 '완주미디어센터'

“한 해 절반 벌써 6월. 시골극장 공씨네와 함께”

시골극장 공씨네 6월 상영 시간표를 공개한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토요극장>과 영화를 더욱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저녁극장>이 상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영화를 매개로 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우리마을 서울국제환경영화제를 통해 환경과 삶을 돌아보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로컬시네마 아카데미 연기수업 참여자도 모집한다. 연기수업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첫 수업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영화 관람을 넘어 직접 배우고 참여하는 특별한 기회를 만나보자.

\*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극장>

| 상영일              | 제목        | 장르  | 관람가     |
|------------------|-----------|-----|---------|
| 6월 20일 (토) 오후 2시 | 끝, 새로운 시작 | 드라마 | 15세 관람가 |

\* 영화를 깊이 있게 <저녁극장>

| 상영일              | 제목   | 장르  | 관람가     |
|------------------|------|-----|---------|
| 6월 30일 (화) 오후 7시 | 비정성시 | 드라마 | 15세 관람가 |

\* 우리마을 <서울국제환경영화제> --> 홈페이지 신청

| 상영일              | 제목          | 장르    | 관람가    |
|------------------|-------------|-------|--------|
| 6월 27일 (토) 오후 2시 | 자전거로 만드는 도시 | 다큐멘터리 | 전체 관람가 |

문의: 063-262-1895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10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 사계 여름메뉴 출시

무더운 여름, 시원한 한 그릇이 생각나는 계절이다. 사계가 여름 신메뉴로 냉모밀과 곶들이막국수를 선보였다. 냉모밀은 직접 만든 수제 쓰유를 한 달 이상 숙성해 깊고 진한 감칠맛을 살렸다. 시원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이 어우러져 더위를 식혀주는 여름 별미로 제격이다.

곶들이막국수는 이름처럼 곶들한 면발의 식감이 매력이다. 과일을 베이스로 한 특제소스를 더해 새콤달콤하면서도 깔끔한 맛을 즐길 수 있다. 가격은 곶들이막국수 일반 1만1천 원, 정식 1만3천 원이며, 냉모밀 정식은 1만2천 원이다. 올여름, 사계에서 시원한 별미 한 그릇으로 무더위를 날려보자.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

문의: 063-904-8884

### 화산면 환경지킴이 환경반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우리 마을을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화산면 환경지킴이 환경반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자원순환과 환경 실천에 관심 있는 완주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화산면민을 우선 선발한다. 교육은 7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강 의장에서 진행되며, 수료 후에는 마을 환경반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환경 개선과 자원순환 실천에 참여하게 된다. 모집은 6월 25일 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063-905-505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카페 헤이니, 리뉴얼 오픈 이벤트

삼례읍 카페 헤이니가 매장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새 단장을 준비하고 있다. 리뉴얼과 함께 커피·음료 및 디저트 메뉴를 새롭게 정비하고, 오는 7월에는 브런치 메뉴도 선보일 예정이다. 오픈 2주년을 앞두고 응원의 댓글을 남긴 팔로워를 대상으로 브런치 메뉴와 음료 이용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더욱 편안해진 공간에서 만날 새로운 헤이니를 기대해보자.

인스타그램: cafe\_heynee

### 서두마을, 생생마을 콘테스트 '최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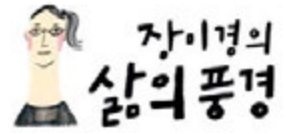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제13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서두마을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는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 있는 농촌'을 목표로 마을공동체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 13회째를 맞았다.

서두마을은 이번 콘테스트에서 생강을 활용한 공동체 소득 창출 사례를 주제로 발표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특히 고흥화가 진행되는 농촌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며 공동체를 운영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두마을은 오는 9월 열리는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 전북 대표로 참가해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설 예정이다.

# 할머니의 낙원, 감나무가 있는 작은 밭



고산면 자포마을 이말레 할머니 이야기

밭두둑을 끼고 감나무 몇 그루가 줄지어 서 있는 할머니의 작은 밭 너머에는 고산천이 흐르고 그 너머에는 안수산이 우뚝 서 있고 또 그 너머에는 6월의 하얀 뭉게구름이 몽실몽실 피어오른다. 감나무 잎사귀들이 만들어 놓은 그늘 아래 아주 작은 움막이 하나 있고 그 움막 안에는 호미와 낫, 소쿠리 같은 손때 묻은 농사 도구들이 있다. 어디서 날아와 짝을 띄웠는지는 몰라도 몇 해 전부터 저절로 자라고 있는 금낭화 핀 옆자리가 이말레(84세) 할머니의 자리다. 그 자리에 앉아 집에서 챙겨온 베지밀도 마시고 산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도 쐬고 오고 가는 동네 사람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눈다. 상추 대궁이 벌써 올라 왔고만, 씨가 잘 여물었나, 날이 왜 이렇게 가물다냐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이다.

“이 밭에 농사지은 것이 한 십 년 되었나 봐. 우리 둘째 아들이 엄마 심심하니까 농사 지으라고 땅을 샀어. 한 오백 평 되나 봐. 저기 매실나무 있는 데까지 우리 땅인데, 저기 양파 심은 곳은 땅 놀리기 위해서 양파 심으라고 땅 빌려주고 나는 여기 감나무 둘레 밭에만 농사짓지. 여기는 감나무 밑이라 빛이 잘 안 돼. 빨강상추는 지금 씨가 영글고 있어. 이 씨가 몇 년이 되었나 몰라. 참 오래된 씨야. 이 상추를 먹어 본 사람들이 이 씨가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싸. 이 씨는 살라고 해도 없어. 여러 사람이 부탁을 했싸. 이 씨는 어디서 났냐면 나 젊어서 저그 새뽕이라고 지금은 울소리에 있는 친구 밭에 가서 상추를 뜯다가 팔았더니 맛나다고 잘 팔려. 그래서 ‘나 그 씨 열 개만 줘라’ 그랬더니 친구가 씨를 주면서 이 상추씨가 나 어려서부터 심었던 상추씨다 그러더라고. 그 친구도 나랑 동갑이니까 이 씨가 얼마나 오래되었겠어. 상추가 맛있고 대궁이 후딱 쓴다고 그러. 하여튼 맛있어. 친구한테 얻은 씨를 심어서 먹고 또 씨 받아서 심고. 이제 대궁이 서긴 했는데 씨가 잘 여물랑가 어쩔랑가. 이제 올해 상추는 끝났고 내년 봄을 기다려 봐야지. 내가 파는 상추는 진짜 맛있어. 저 담배상추는 겉질이 하면 꼭 배추 겉질이 같어. 배추 같이 아삭아삭 혀.”

할머니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 드시고 밭으로 나온다. 몸이 불편해 4~5년 전부터 타기 시작한 전동차가 할머니의 밭이다. 오전 9

시까지 밭일을 하다가 집에서 좀 쉬고 시장옷집에서 또래들이랑 어울려서 점심도 먹고 같이 놀다가 오후 5시면 다시 밭으로 나간다. 한 시간 정도 머물다가 저녁을 드시러 집에 들어가는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편안하고 좋은 삶이다. 집에만 있으면 잠도 안 오고 여기저기 아파서 차라리 멀리 산도 보이고 바람도 쉴 수 있는 감나무 아래 작은 밭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하셨다.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더 아파. 오늘도 파 다듬다가 피곤해서 방에 누워 한소끔 자야겠다 하는데 잠도 안 오고 오히려 더 아파. 그럴 때는 일단 나와서 시장 옷집에 가서 또래들이랑 놀다가 해질 때 되면 밭으로 가는 거지. 밭에 나오면 집에 있는 것보다도 시원하고 좋아. 심심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오다가다 밭 구다보고 뭣이 잘 되었네, 어찌네 말을 붙이는 거지. 씨를 얻어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도 많고 시어머니도 많지. 이 밭은 감나무 그늘이 쳐서 작물들이 잘 안 썩어. 그러니까 남 빌려주기 위해서 내가 지어 먹는 거지. 그늘진 곳마다 취 심고 상추, 아욱, 파, 도라지, 강쟁이콩(강낭콩) 같은 걸 심어. 감나무 옆에 포도나무는 아들이 심어 놓은 거야. 이 금낭화꽃은 내가 심은 것이 아니라 어디서 씨가 날라왔는가 이렇게 나더라고. 이 꽃이 산에서 나는 꽃이거든. 근데 어디서 날라와서 나 쉬는 자리에 이렇게 나네. 예쁘니까 안 뽑고 그냥 놔뒀어.”

할머니의 고향은 고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비봉면 대티(산고개). 지금은 무슨 마을로 불리는지 모르고 그저 대티라는 말만 기억난다. 어려운 살림살이였고 8살에 전쟁이 나서 피난 다니고 학교 대문은 쳐다도 못 봤다. 스물두 살에 고산 자포마을로 시집을 왔고 아홉 살 차이난 남편은 할머니 이십 대 후반에 돌아가셔서 지금껏 혼자서 육남매를 키우고 살아왔다.

“큰아들이 환갑, 진갑 다 넘었잖아. 아들만 다섯, 맨 꼬터리 막내딸 하나 해서 육남매 낳았지. 셋째, 넷째는 먼저 떠내려갔지. 나 8살 때 전쟁 나서 피난 다니고 뭐 학교는 쳐다도 못 봤지. 눈 뜨고 봉사여. 머스마들만 가르치고 딸내미들은 글자 가르치면 친정으로 편지했잖고 집 나간다고 안 가르쳤디아. 아무튼 중매로 시집와서 고생 징그럽게 많이 했지. 육남매 먹여 살려야 하니까 내가 욱했지. 고산 장날에는 장터에 나와서 장사하고 그 아닌 날에는 맨날 대가리에 이고 지고 장사 다녔어. 그때만 해도 고산은 읍내니까 더 시골로 머리에 이고 지고 팔러 다니는 거야. 화산, 비봉으로 많이 다녔어. 버스가 있기는 했지만 드물었어. 안 해본 장사가 없어. 생선 장사, 새우젓 장사, 과일 장사도 하고. 그런 것을 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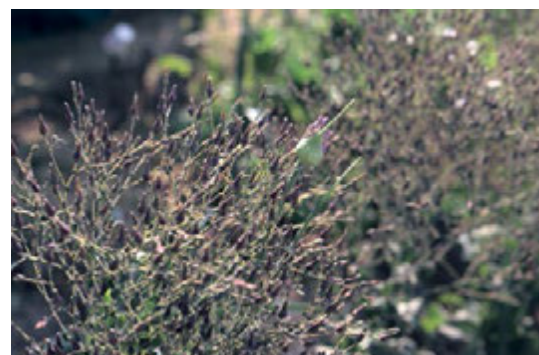
왼쪽\_ 2016년 12월 고산고 다니던 손주가 고산장날에 도라지 파는 할머니를 직접 찍은 사진  
오른쪽\_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피기 시작한 금낭화 옆에 앉아 쉬고 있는 이말레 할머니. 두 사진의 시간은 10여 년이 차이 난다.



머리에 이고 촌으로 걸어 들어가서 팔았지. 지금은 참 까마득해.”

이말레 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10년 전쯤이다. 고산고 아이들과 영화 수업하러 장날 촬영을 하던 중 한 아이가 ‘어, 할머니다’ 하고 인사를 나눴던 그분이 바로 이말레 할머니다. 손주가 사진을 찍어 주겠다고 하며 여러 장의 사진을 찍는 동안 할머니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호탕하게 웃어 주었다.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꼿꼿하던 할머니의 허리는 굽었지만 여전히 밭에서 기른 작물을 가지고 고산 장날에 나온다. 무려 오십 년의 세월 동안.

“요즘은 자식한테 의지하는 시대가 아니야. 옛날 처럼 자식들이 무조건 부모 모시고 사는 세상이 아니야. 몸이 조금 힘들어도 나 혼자 이렇게 밭에 나와 짜드락짜드락 거리고 사는 것이 마음 편하고 좋아. 내 인생 중에 좋았던 시절은 그래도 젊을 때지. 고생은 징그럽게 했어도 자고 나면 아침에 몸이 가뿐하고 또 신이 나게 일하러 나가고 그랬지. 머리에 이고 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닐 때 부끄러울 틈이 어디 있어. 내 몸을 움직여야 일곱 식구 먹고 사는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생선 사세요~ 뭐 사세요~ 그러면서 돌아다녔어. 그리고 집에 오면 밤 10시가 돼. 지금은 누구 밥 해먹일 사람 없고 한갓지고 좋아. 이렇게 밭에 앉아서 획 둘러보고 그것이 좋아. 여기 앉아 있으면 사방이 터져서 여름에도 참 시원하고 좋아.”



맛있다고 소문난 빨강상추. 대공이 올라와 씨가 어울어지고 있다.

할머니의 작은 밭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 걷는 나의 오래된 산책길에 면해 있다. 가끔은 가르마처럼 하얗고 길게 이어진 농로 위를 빨간색 전동차를 타고 조심스럽게 미끄러져 오는 할머니와 눈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감나무밭 그늘 아래 금낭화 핀 옆자리에 앉아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곳은 할머니의 작은 낙원이었다. 할머니가 아끼는 오래된 내력이 있는 빨강상추의 대공이 더 여물면 나도 씨앗을 몇 개쯤 얻어볼까 한다.

글-사진=장미경 장미경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고산미소시장에서 공동체가 만든 제품을 파는 편집매장 흥흥을 운영한다.

완주허브랑협동조합

# 쑥쑥 자라라, 소외 없는 치유의 힘



바람결에 향긋한 바질과 캐모마일 향이 실려 오는 ‘완주허브랑 협동조합(이하 허브랑)’은 환경과 먹거리의 가치에 중점을 두는 농촌 치유 체험농장이다. 2010년부터 상관면 지역에서 허브를 테마로 한 ‘허브스팸’을 운영해 온 이곳은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농촌돌봄농장으로 신규 선정되었다. 현재 허브랑은 한사랑정신재활시설, 마음사랑병원 등 정신장애인은 물론 지역 고령자까지 품으며 교육과 치유를 병행하고 있다.

>> **흙과 꽃향기에 피어오르는 동심**

5월 18일 햇볕이 따사로운 초여름, 허브스팸의 텃밭은 상관면 민목·계월·부흥마을에서 모인 일곱 어르신들의 손길로 금세 활기를 띠었다. 평생 흙을 만져온 베테랑답게 옥수수 모종을 순식간에 옮겨 심은 어르신들은 이어진 원에 시간에 직접 수확한 장미와 편백 가지로 저마다 개성 넘치는 꽃바구니를 꾸몄다. 꽃바구니를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소년,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 동심 가득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다.

김계화 어르신은 “평생 농사만 지었는데 이렇게 예쁜 꽃바구니를 만드니 꼭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기분 좋은 향기도 맡고 예쁜 선물도 손에 쥐어 가니, 올 때마다 선물 받는 기분이네.”라며 웃었다. 김만기 어르신도 “이웃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다 모이니 농장이 꼭 시끌벅적한 마을 사랑방 같다”며 거들었다.

>> **일회성 체험 넘어 치유와 복귀 돕는 농장으로**

허브스팸이 3개 마을 어르신의 사랑방이 되기까지는 김수영·김선용 대표의 오랜 고민이 있었다. 2019년 치유농업대학 수료한 그들은 상관면에 세워진 한사랑정신재활시설 이용자와과의 만남을 계기로 사회적 농업에 관심을 두게 됐다. “처음에는 일회성 원에 체험으로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꾸준히 사회적 기술을 익히고 연습하면 충분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인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협업해 시범 프로그램을

실행해 본 후에 정식 지원사업에 도전해보기로 했죠.” 사회적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 지원에 발맞추기 위해 지역 농가들과 뜻을 모아 설립한 법인이 지금의 ‘완주허브랑협동조합’이다. 예전부터 연을 맺은 한사랑정신재활시설 이용자들 외에도 인근 마을 고령자, 마음사랑병원 참여자까지 함께 품는 사회적 농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대상을 향한 프로그램의 목표도 조금씩 다르다. 김수영 대표는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외로움을 덜고 활기를 되찾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정신재활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는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대처 능력을 키워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목표이며, 더 나아가 이들을 시간제로 직접 고용해 사회적 자립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완주허브랑협동조합(허브스팸)** +

**[농장 정보]**

- 대표자 김수영
- 주 소 완주군 상관면 상관소양로 595
- 문 의 010-2288-7107



김수영, 김선용 대표 부부



직접 수확한 장미와 편백 가지로 개성 넘치는 꽃바구니를 꾸민 참가자들

>> 6차 산업과 지역 연대로 완성하는 돌봄

올해 허브랑은 전주시 내 사회적협동조합 두 곳을 비롯해 상관면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 내 6개 주요 단체와 MOU를 체결했다. 10년 전부터 교류해 온 용진 '꿈드림' 농가와 고산의 대규모 '금원' 농장 등 생산·가공·체험 노하우를 가진 조합원 농가들과도 단단하게 결속돼 있다.

김선용 대표는 “내년에는 참여자 그룹을 더 확대하기 위해 상관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각지대의 참여자 발굴을 전담해 주기로 했고, 상관면이장협의회를 통해 아직 접촉하지 못한 면내 관계 기관들과의 연결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동네 구석구석 소외된 이웃을 밖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역

단체와의 협력이 무척 중요한 만큼, 앞으로 정기 세미나나 설명회를 열어 농장의 입지를 다지고 연대의 손길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지원사업이 끝나도 돌봄을 지속하기 위해 농업 생산·가공·체험을 아우르는 6차 산업 기반을 튼튼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완주는 로컬푸드 1번지로서 다품종 소량 재배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공·유통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요. 이 인프라 위에 촘촘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더하면 돌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네의 숨은 소외계층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일에 앞장서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상생하는 농촌 치유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봉동 낙평리 데일리로그감성사진관

# 직접 고쳐 문 연 사진관서 완주를 기록하다



박정운 사진사는 7년 전 낡은 건물을 직접 고쳐 사진관을 열고 완주사람들의 소중한 삶을 기록하고 있다.

봉동읍 낙평리에 자리 잡은 '데일리로그감성사진관'은 사진사 박정운 씨가 오랫동안 비어 있던 건물을 직접 고쳐 만들었다. 건물부터 정원까지 손수 고치고 가꾸며 2019년 6월 문을 연 이래 7년 동안 완주 주민들의 다양한 순간을 기록해오고 있다.

처음 이곳은 촬영 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낡은 상태였다. 벽과 바닥을 손봐 햇살이 잘 드는 스튜디오로 만들고 마당에는 계절마다 다른 분위기를 내도록 작은 정원을 조성했다. 실내뿐 아니라 야외에서도 자연스러운 촬영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꾸준히 가꾸었다.

박정운 씨의 사진관은 단순히 사진을 찍는 곳이 아니다. 가족의 오늘을 기록하고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부모님과 함께 남기는 가족사진, 아이들의 성장 기록,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증명사진과 여권사진까지 주민들의 삶 속 다양한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내고 있다.

사진관 곳곳에는 박정운 사진사가 기록해 온 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화려한 연출보다는 자연스러운 표정과 눈빛을 담아내는 데 집중하며 저마다의 개성과 순간을 포착했다.

인위적으로 만든 어색한 포즈보다 평소 모습에 가까운 웃음과 시선을 담아내기 위해 촬영 전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촬영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박정운 씨는 "사진 한 장이 시간이 지나면 가족의 소중한 기록이 된다"며 "완주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찾아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으로 오래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 주소\_ 완주군 봉동읍 낙평동서로 77-3
- 문의\_ 010-4252-9950
- 촬영\_ 가족사진, 증명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커플사진, 만삭사진, 형제사진, 프로필사진



왼쪽\_ 박정운 사진사가 담아낸 한 가족의 하루. 직접 가꾸은 정원이 가족들의 자연스러운 표정과 어우러져 감성적인 매력이 흐른다. 오른쪽\_ 아이의 순수한 미소를 포착했다.

이서면에 새 보금자리 마련한 사회적협동조합 완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

## 이전 'W복합문화공간 아트홀' 에서 만나요



이서면으로 동지를 옮긴 지난 5월 열린 개관 음악회 모습

완주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완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하 사협완주필)가 이서면에 새 동지를 들고, 지난 5월 17일 이전 개소를 기념하는 개관 음악회를 열었다.

콩쥐팥쥐도서관 근처에 위치한 보금자리의 명칭은 'W복합문화공간 아트홀'이다. 성공적으로 개관 음악회를 마무리한 조두호 대표는 "지역민들이 새로운 문화공간에 발걸음해주셨기에 더 뜻깊은 공연이었다"고 웃었다.

2018년도에 창단한 사협완주필은 2019년부터 완주군 읍면 문화소외지역 학교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매년 1~3회가량 운영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6월 9일 전북푸른학교에 이어 7월 7일에는 비봉초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다가오는 6월 2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열릴 '2026년 사협완주필 정기연주회 - 클래식 오디세이 거장의 발자취 시리즈5'를 앞두고 맹연습 중이다. 조두호 대표는 "지역을 대표하는 큰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일이 때로는 버겁고 외롭지만, 클래식 저변 확대와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보전 등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더 발전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Q. — 명칭의 의미

새로운 보금자리는 복합적인 성격의 문화공간으로, 완주군의 영문 이니셜 W를 따와 'W복합문화공간 아트홀'이라 칭했습니다. 완주군에 정식 등록된 공연장이자 완주필의 연습 공간입니다.

### Q. — 새로운 공간이 불러온 변화

이서 혁신도시에 있어서 관객 인프라 형성과 홍보 차원에서 안정성이 생겼습니다. 인근 지역민들이 걸어서 방문할 수 있고, 지하 주차장이 확보되어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 Q. — W복합문화공간 아트홀의 운영 방향

사협완주필 자체 연습과 공연 외에도 지역민들의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민들을 위한 상설 기획공연을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이며 11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연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에 열리니, 군민 여러분이 부담 없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공연 소식

#### 클래식 오디세이 거장의 발자취Ⅴ

- 일시: 2026. 6. 28.(일) 오후 7시
-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 관람료 | 연령: 무료 | 8세 이상 입장 가능

#### 공연 소식

- 주소\_ 완주군 이서면 기지로 36, 스타타워빌딩 509호
- 문의\_ 063-291-3780

**바로잡습니다**

지난 5월호 '도자기 공방 위시아트랩 확장 이전' 기사에 대표자 성함이 '한송지'가 아닌 '송은지'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혼란하셨을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마을 소식**

**운주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직접 만든 기린 들고  
어르신들께 인사드렸어요”**

가정의 달을 맞아 운주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알록달록 색을 입히고 정성껏 꾸민 노란 기린 작품을 들고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 행사장에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아이들은 직접 만든 기린을 건네며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했고, 어르신들은 환한 미소로 답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아이들 역시 자신이 만든 작품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다. 선물 전달이 끝난 뒤에는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며 세대가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서로의 정을 나누기에 충분했다. 운주지역아동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과 나눔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현주 마을기자

**양생원과 일 년 열두 달**



#윤대라 #artistDERA #울랄라선녀마마

윤대라는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공부하고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었어요. 고양이 양생원, 멧뭉이 견재, 꼬꼬닭 함께 좌충우돌 우당탕탕 완주살이 11년 차.

[https://www.instagram.com/artist\\_dera/](https://www.instagram.com/artist_dera/)



기린 인형을 선물받은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다.



운주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마을 어르신들께 선물할 기린을 만들며 즐거워 하고 있다

## 질문이 있는 이달의 책

강혜숙 씀 | 후즈갓마이테일 | 2026 | 236쪽 | 19,800원

“전성기는 산꼭대기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원하는 산을 찾는 과정”

나이 마흔이 도시에선 커리어 하이로 찍고 다음 시기를 준비하는 나이라면 시골에선 이제 막 사람 구실?하는 나이이기도 하다. 같은 나이라도 내가 속한 집단이나 환경에 따라 숫자는 다르게 읽히고 받아들여진다. <101 전성기 도감>은 자기만의 때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다.

작년 겨울에는 교육방송을 보며 수학 문제집을 내리 풀었다. 14일 동안 전 과정을 훑었는데 그렇게 부듯할 수 없더라. 약속도 거의 만들지 않고 홀로 책상에 앉아 수학 문제들과 씨름했다. 입시를 치르는 것도 아니고, 할 일 없고 시간이 많아서 그러느냐 묻는 사람도 있었지만, 기억에도 안 남을 수다를 떨거나 유튜브나 넷플릭스 볼 시간에 푼다고 생각하면 꽤나 머리가 팽팽 도는 훈련과정이었다.

초등 4학년에 일지감치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로서 평생 수학 앞에서만 쪼그라드는 마음을 어떻게든 좀 해결?해보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다. 큰 목표나 부담 없이 운동하듯 문제를 푸니 재밌다. 막판에 막히는 문제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지. 성적보다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태도라는 말이 아이들의 마음에 얼마나 닿을 수 있을까? 성적이 전성기를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어른들은 말하지만 사실 성적은 최선을 다한 과정에 따라오는 결과다.

‘전성기’라는 말이 특정 시기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남이 보는 전성기와 스스로 생각하는 전성기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꼭 어떤 성취를 해야 전성기일까? 여러 의문이 들기도 한다. <101 전성기 도감> 속 인물들의 전성기를 보며 나만의 전성기를 정의해보면 어떨까? 아이와 함께 잠들기 전 하나씩 읽거나,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며 홀로 읽어도 좋을 이야기들이다. 나아가 나이 앞에서 주저하거나 쓸모없는 일이라 여기던 소소한 일들을 지금 당장 시작해보자. 게임을 즐기다 기네스북에 오른 90세 할머니 머리 하마코부터 인종차별에 반대하며 등교운동을 했던 6살 루이 브리지스까지, 우리 앞엔 아직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 야호!

사실 남들이 말하는 빛나는 전성기가 없어도 괜찮다. 나만의 전성기를 만나지 않고 인생이 마무리되어도 그 나름대로 충분하다. ‘가장 즐거운 순간’이 바로 전성기라면! 나이 앞에 주저앉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지금 이 순간’을 가꾸는 힘이 이 책을 통해 생길 수 있다면 좋겠다.

### 림보책방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6 2층

☎ 063) 717-7011

\* 주제를 비롯한 모든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말하기임을 밝힙니다. | 신작 중심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 매일 설레

#84 겸사겸사



설레는 제주에서 그림 그리고 디자인한다.

촌티작렬 시골잡지  
**완두콩 구독문의**  
 ☎ 291-8448

## 사랑의 상처를 다스리는 블루스

### 이종민의 다스림의 음악

(30)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QR을 스캔해보세요.  
음악이 재생됩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날의 거리는 묘하게 허전하다. 어제까지 나부끼던 현수막은 아직 바람에 걸려 있지만 그 문장들의 열기는 벌써 식어버렸다. 확성기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당선의 환호와 낙선의 탄식은 밤새 술잔과 전화기 속으로 흩어졌다. 사람들은 다시 장마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버스는 같은 시간에 정류장에 선다. 민주주의의 큰 소동이 지나간 뒤 삶은 언제나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런 날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을 듣는다. 꽤 잘 어울린다. 이 노래는 본래 사랑의 상처를 노래하지만 꼭 남녀의 사랑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너무 믿었으나 상처가 된 일, 너무 기대했으나 허망하게 끝난 일, 너무 뜨겁게 붙들었으나 결국 나를 아프게 한 모든 것에 이 노래는 조용히 닿는다.

이 노래의 말은 시인 류근에게서 왔다. 류근은 이 작품을 두고 “면 전생애 내가 쓴 유서” 같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참으로 그다운 말이다. 인간으로 태어나 사랑이라는 것을 겪었는데 그 사랑이 너무 아팠으므로 다음 세상에는 차라리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로 태어나고 싶다는 마음. 그것은 단순한 실연의 푸념이 아니라 인간으로 산다는 일 자체에 대한 깊은 피로의 고백이다. 사랑 때문에 인간은 가장 아름다워지지만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가장 비참해지기도 한다.

김광석은 이 시에 직접 선율을 입혀 불렀다. 그의 노래들 가운데서도 이 곡은 드물게 블루스의 성향이 짙다. 하모니카는 젖은 바람처럼 울고 기타

는 먼 길 위에서 미끄러지는 탄식처럼 들린다. 슬픔을 없애려 하지 않고 슬픔을 끌어안은 채 한 걸음 더 걷게 만드는 음악의 힘이 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사랑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다스림의 음악이다.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고 상처가 더는 날뛰지 않도록 조용히 눌러 앉히는 노래다.

선거도 집단적 사랑의 한 형식이다. 우리는 사랑을 믿고 말을 믿으며 더 나은 내일을 믿는다. 한 표를 던진다는 것은 아직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작은 고백이다. 그러나 그 믿음이 늘 보답받는 것은 아니다. 승리한 이들도 곧 권력의 무게 앞에서 흔들릴 것이고 패배한 이들도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선거가 끝난 뒤 남는 것은 승패만이 아니다. 서로에게 남긴 상처, 과장된 말들, 갈라진 마음들, 그리고 다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도 남는다.

그럴 때 이 노래의 제목은 이상한 위로가 된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체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가장 깊은 사랑의 역설이다.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아플 리 없다. 너무 사랑했으므로 너무 아팠고 너무 아팠으므로 이제는 그것을 사랑이 아니었다고 말해보는 것이다. 정치도, 공동체도, 고향도 마찬가지다. 너무 아픈 기대는 기대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지만 실은 너무 기대했기에 아픈 것이다.

영화 <클래식>의 OST로 쓰였던 이 노래는 첫사랑의 기억과도 이어져 있다. 첫사랑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끝내 다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 남는다. 공동체에 대한 사랑도 그런 면이 있다. 완전한 승리도, 완전한 화해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시 기대하고 다시 실망하며 이곳에서 살아간다. 그것이 인간의 비극이고 또한 인간의 품위다.

더욱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김광석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박상원이 진행하던 <겨울나기>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노래를 불렀다는 기억이다. 결과를 알고 난 뒤에야 우리는 과거의 장면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 그날의 노래는 한 방송의 한 장면이 아니라, 이승에 남긴 마지막 인사처럼 들린다. “너무 아픈 사랑”이라는 말은 그 뒤로 한 사람의 실연을 넘어 한 가족의 삶 전체를 감싸는 문장이 되었다.

진심으로 쓴 아픔은 오래 살아남는다. 한 사람의 상처가 수많은 사람의 위로가 되고, 한 시절의 절망이 다른 시절의 마음을 다스리는 약이 된다.

지방선거가 끝난 거리에서 이 노래를 듣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승자는 조금 겸손해지고, 패자는 조금 덜 무너지며, 유권자는 다시 생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 노래라도 들으며 그 아픔을 조용히 다스려야 한다. 김광석의 낮은 목소리와 류근의 상처 입은 문장은 오늘도 그렇게 말한다. 사랑은 끝나도 삶은 남고, 선거는 끝나도 공동체는 남는다. 그러니 다시 살아야 한다. 미워하면서도 아니라 아프면서도 서로를 아주 버리지 않는 마음으로.



이종민은 40여 년간 지켜온 대학 강단에서 물러나 고향 완주에서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마을 소식

#### 운주농촌유학센터 ‘계룡-운주 잇기’ 교류 행사

지난 5월 30일, 충남 계룡시 계룡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들과 학부모 등 30여 명이 운주농촌유학센터를 찾았다. 이번 도·농 꿈길 교류 행사는 도시와 농촌 아이들이 소통하며 공동체 의식을 다지기 위해 기획되었다.

대둔산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절경을 감상한 아이들은 아찔한 구름다리를 함께 건너며 서로를 응원했다. 산행 후 마당에서 펼쳐진 바비큐 파티에서는 텃밭 쌈 채소와 제철 오디, 보리수를

맛보며 농촌의 넉넉한 인심을 배웠다. 오후에는 맑은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축구장에서 땀 흘리며 뛰어놀았다. 이어 고사리손으로 ‘과일 찹쌀떡’을 빚는 동안 어색함은 사라지고 어느새 깊은 정이 쌓였다. 마지막 소감 발표 시간에서 한 학생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계곡에서 놀다 보니 금방 친해졌다”며 “운주에서 만든 찹쌀떡처럼 달콤한 추억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아쉬운 작별 인사를 전했다.



## 뜸부기와 자업자득

농/촌/별/곡



차 남 호

저만치 바라다보는 산자락에는 콩고물을 뿌려놓은 듯 뿌연 얼룩이 점점이 드리워져 있다. 밤꽃이 흐드러진 6월, 뒷산에 들어서면 귀에 익은 뽕꾸기 울음이 먼저 반긴다. 그와 동시에 떠오르는 노래는 거의 조건반사라 할 수 있겠다.

뜸북뜸북 뽕북새 눈에서 울고, 삐죽삐죽 뽕북새 숲에서 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말 타고 서울 갈 일도, 비단구두도 없는 세월이지만 주뽕야소(낮에는 뽕꾸기 소리, 밤에는 소쩍새 소리)는 지금이 모내기철임을 알려준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 보름 남짓 모내기 준비로 제법 바쁘

게 보냈다. 예초기 돌려 논둑에 우거진 풀을 쳐내고, 쟁기질하고, 철렁철렁 물을 잡아 논바닥 삶고(흔히 로터리 친다고 한다) 썩레질을 해두었다. 이들 작업이야 이즈음의 '루틴' 같은 것이니 길게 얘기할 것도 없다. 내일-모레 이들 남짓 이양기를 몰아 모를 심는 일만 남았다. 대부분 기계작업이니 모내기한다고 온 동네가 들썩이던 정취나 흥겨움 같은 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가 된 지 오래다.

그리고 보니 저 노래 속 말 탄 오빠는 말할 것도 없고 뽕부기도 아득한 얘기가 되었다. 사실 뽕부기는 모내기를 하고 벼가 좀 자란 뒤에 벼대를 꺾어 등지를 틀고 알을 낳는다. 그러니 뽕부기 울음을 들으려면 아직 달포는 더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설렁 달포가 지나다 해도 뽕부기를 볼 일을 없을 것이다. 농약을 쓰기 시작하고부터는 뽕부기가 논배미에서 아예 자취를 감춰버린 탓이다.

호남평야 언저리에서 나오 자란 나는 "뜸,뜸,뜸..." 끊어질 듯 이어지는 뽕부기 울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 소리가 참 아련했는데, 독극물에 내쫓겨 돌아오지 못하는 처지를 생각하니 이제 처연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하긴 돌아오지 못하는 것, 사라진 것이 어디 뽕부기뿐이라. 인간의 오만함과 끝없는 욕심은 이제 지구를 극단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오직 인류만이 언어를 쓰고, 이를 바탕으로

로 고도의 사유를 통해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노라고. '휴머니즘'이라는 고귀한 이름의 인간중심주의는 그렇게 자연이라 불리는 무생물과 동식물을 가차 없이 약탈해오지 않았던가. 나아가 "인간이 아니다"(비인간)가 가장 모욕적인 표현일만큼 자연에 적대적이었다.

이 유아독존의 자만이 부메랑이 되어 인류 자신의 멸망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그칠 줄 모르는 욕망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끝내 기후위기를 불렀다. 팬데믹과 슈퍼박테리아 발생은 열대우림 파괴와 공장식 축산 급증에 따른 바이러스 교란과 항생제 남용의 여파라는 진단이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 남용된 플라스틱의 미세입자는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인공지능(AI)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거니와 소모되는 막대한 전기에너지와 냉각수 등이 극심한 자원약탈과 생태파괴를 촉진할 수밖에 없다.

이 모두가 자업자득이다. 그동안 인간들이 파괴하고 능멸해온 '비인간'들의 반격이다. 자연생태는 말을 못 하니 스스로 어떤 작용도 못하리라 여긴다면 그건 인간의 무지이자 오만일 뿐이다. 비록 농약도 치지 않고 비료도 주지 않는 벼농사를 짓고 있지만 나는 차마 우리 눈에 뽕부기가 등지를 틀고 깃들여 살기를 바라지는 못하겠다. 사람이 염치는 있어야지. /비봉 염암마을

### 의회소식

## 완주군의회, 제10대 당선의원 교육 실시

### 본격 의정활동 준비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6월 15일 제10대 완주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당선인들의 원활한 의회 적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의정활동 절차, 예산·결산 심사, 조례 제·개정 등 의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이

해를 높이고,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교육이 이뤄졌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당선인들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완주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제10대 완주군의회 의원 당선인들이 의정활동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마을이야기 완두콩  
완주 CB공동체

- 발 행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 발 행 인 이용규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00
- 대 표 전 화 063-291-8448 • 팩 스 063-261-8448
- 홈 페이지 www.wandookong.kr
- 취 재 · 글 윤하나, 성다연
- 편 집 장혜영, 이운영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완주.라00002 구독료 월 5,000원 후원 월 1만 원  
 독자기고 및 제보 toktok1942@hanmail.net

# 차림축제

2026.11. 20.(금)  
~ 11. 22.(일)  
완주군미래행복센터

# 더-하하기

나눔나눔

생태놀이터


함께식탁


땡땡장터

공연



함께하는 곳

 전환기술  
사회적협동조합

 더나은문화공동체

 와సు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